

의복구성학의 연구 경향 분석
- 2000~2008년까지 학회지를 중심으로 -

정 화 연[†]
국제대학 패션 계열

A Study on Research Trends in Clothing Construction in Korea
- Based on Journal Publications from 2000 through 2008 -

Hwa-Yeon Jeong[†]

Dept. of Fashion, Kookje College

(2009. 7. 31. 접수일 : 2009. 9. 26. 수정완료일 : 2009. 10. 7.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search trends and to find a future direction in the area of clothing construction in Korea. The data were included articles on clothing construction published in the five major journals from 2000 through 2008 in Korea. The identified 513 articles were categorized in eight areas: design related clothing construction, study of body types, study of patterns, size of apparel, fitting of clothing,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 sewing and the others.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ercentage of articles on clothing construction among articles published in each journal, the percentage of articles on clothing construction was highest as 21.2% i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nd next, 19.3% i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As to the percentage of research on clothing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me, research on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 were largest as 28.2%, and next, research on body types as 18.9%, and research on garment size systems as 10.5%. Research on protective clothing has increased remarkably since 2000, and particularly in 2004 it was so active that it occupied 44.1% of research on clothing construction. Next, with regard to the subjects of research, research with female subjects was more frequent than that with male subjects according to gender, and research with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was most frequent according to age. These results show somewhat unbalanced tendencies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Key words: clothing construction(의복구성학), research trends(연구 경향), protective clothing and functional clothing(특수복과 기능복),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20대의 남녀).

I. 서 론

의복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호의 목적으로든 혹은

장식의 목적으로든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도구가 되었다. 의복에 관한 교육은 1872년 Iowa 주립대학에서 “Housekeeping”이라는 강의가 이루어지면 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29년 가

[†] 교신저자 E-mail : jhykcd@yahoo.co.kr

정학 도입과 함께 시작된 의류학은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교육으로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전문교육으로 교육목표가 바뀌면서 실용학문으로 발전하여 왔다¹⁾. 의류학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정학의 한 분야에서 독립하면서 연구 영역 별로 세분화되면서 복식의장학,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의상사회심리학, 복식사, 의류상품학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각 분야 별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 의류학의 범위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현 시대의 환경으로 인해 학계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²⁾. 의류학의 연구영역 중 의복구성학은 종래에는 옷을 만드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기성복이 일반화되고 작업환경 또한 많은 변화가 있는 이래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의복구성학의 교육 및 연구 대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³⁾. 의복구성학의 영역은 학교나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디자인, 패턴 메이킹, 재단 및 봉제, 작장평가의 4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의복구성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패턴 메이킹은 설계론의 입장에서 인체의 크기, 형태와 패턴과의 관계, 디자인과 패턴의 도학적인 관계, 소재의 물리적 성질이나 봉제 방법과 패턴과의 관계 등의 이론과 구체적인 인체 실험, 패턴 메이킹 실습, 착용 실험에 의한 패턴 평가 등이 포함된다⁴⁾. 또 디자인을 포함하여 재단, 봉제 등과 관련 있는 의복구성 분야는 의복 제작에 있어서 체형이나 소재의 특성 등 많은 변인

을 가지고 있다.

의류학 연구 경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1977년 대한가정학회에서는 가정학의 최신 정보에서 가정학을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그리고 아동학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의류학은 피복재료학, 복장구성학, 복식의장학 등의 세 분야로 나누었다⁵⁾. 1984년 가정학의 최신 정보 II에서는 의생활이란 명칭을 의류학으로 바꾸고 각 영역을 의류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 연구, 의류사회학 분야로 나누었으며⁶⁾, 1990년 가정학의 최신 정보 III에서는 의류사회학 분야를 문화 분야, 복식사회로 다시 바꾸고 복식 사회심리학과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⁷⁾. 그 외에 박순희⁸⁾는 1970년에서 1980년까지의 논문을 분석하여 의류학 연구동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문수재와 이기열⁹⁾은 한국 가정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검토에서 대한가정학회지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가정학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또 정찬진 외¹⁰⁾의 연구에서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을 중심으로 의류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김정호¹¹⁾는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을 중심으로 90년대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나수임 외¹²⁾의 연구에서는 국내 4개 학회지를 중심으로 1991~1999년의 한국 의류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세부 연구 영역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효숙¹³⁾과 이정순 외¹⁴⁾는 의복구성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하

- 1)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한국의류학의 연구경향분석: 1991~1999,” *복식문화연구* 8권 6호 (2000), p. 853.
- 2) 김정호, “90년대(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한국의류학회지와 한국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 46권 (1999), p. 134.
- 3)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의복구성학의 연구주제 및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9권 2호 (2001), p. 176.
- 4) 박혜숙, 최경미, 조영아, 옹혜정, *피복구성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1998), pp. 10-11.
- 5) 대한가정학회지 편,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의생활*, (서울: 신광출판사, 1977), pp. 1-61.
- 6) 대한가정학회지 편,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II, 의류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4), pp. 1-159.
- 7) 대한가정학회지 편,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III, 의류학*, (서울: 교문사, 1990), pp. 1-215.
- 8) 박순희, “의류학 연구 논문의 분야별 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p. 1-81.
- 9) 문수재, 이기열, “한국 가정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1984), pp. 181-198.
- 10)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 “한국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권 1호 (1991), pp. 28-37.
- 11) 김정호, *op. cit.*, pp. 133-142.
- 12)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op. cit.*, pp. 853-863.
- 13) 김효숙, “의복구성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과 재조명,”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14권 (1991), pp. 103-114.

였으며, 김미자¹⁵⁾는 한국복식의 연구동향을, 조필교¹⁶⁾와 이영혜 외¹⁷⁾는 복식사회,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고, 은숙과 박재옥¹⁸⁾은 복식사와 디자인 및 미학 부분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혜경과 이승희¹⁹⁾는 2000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패션 마케팅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등 의류학 연구 영역 별로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상과 같이 의류학에 대한 포괄적 연구 경향과 영역별 연구 경향에 관해 살펴본 결과, 1990년 이전에는 주로 학위논문 혹은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복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 이후에는 복식문화연구, 의상디자인학회지, 패션비즈니스학회지, 의류산업학회지 등 의류학 관련 학회지가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발간됨에 따라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3D 컴퓨터 도구의 개발로 인체 측정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 원형뿐 아니라 다양한 복종의 패턴 설계 및 기능성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복구성에 관련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간된 의류학 관련 연구 학회지인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복식과 의복구성 분야 중 인체 공학에 대한 연구와 관련이 있는 대한인간공학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의복구성과 관련된 논제를 정리하여 그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논제의 연도별, 학회지별 분포를 분석하여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세부 주제와 그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의복구성 분야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앞으로 연구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국내에서 발간된 가정학 관련 학회지인 대한가정학회지와 의류학 관련 학회지 중에서는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그리고 인접 연구분야 관련 학회지인 대한인간공학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의복구성과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섬유공학회지는 9년간 의복구성 관련 논문 편수가 7편에 불과하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대한가정학회지는 2000년에 발간된 12권부터 2008년에 발간된 10권까지에 게재된 총 222편 중 47편, 한국의류학회지는 2000년에 발간된 8권부터 2008년에 발간된 12권까지에 게재된 총 1,440편 중 238편, 복식문화연구는 2000년에 발간된 6권부터 2008년에 발간된 6권까지에 게재된 총 662편 중 128편, 복식은 2000년에 발간된 8권부터 2008년에 발간된 9권까지에 게재된 총 979편 중 74편을 분석하였다. 또 대한인간공학회지는 2000년에 발간된 4권부터 2008년에 발간된 4권까지에 게재된 26편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분류

수집된 자료 분류는 1990년 가정학의 최신 정보 III 의류학편, 정찬진, 이정순 외 2인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복구성학 분야의 연구 주제는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체형 연구, 의복 패턴 연구, 의류 치수 체계, 의복 맞춤새, 특수복 및 기능복, 봉제 연구,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각 논문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분류 시 제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논문은 각 내용에서 주된 독립변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논문 전체의 연구 방향과 내용을 참고로 지배적인 분야에 포함시켰다. 연구 주제에 관한 분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동

14)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op. cit.*, pp. 175-187.

15) 김미자,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 1958~1989,” *복식* 15권 (1990), pp. 55-61.

16) 조필교, “의복사회심리학의 동향과 그 고찰,” *경북대학교 교육연구지* 28권 (1996), pp. 129-141.

17) 이영혜, 이인자, “복식사회, 심리학분야의 연구 경향 분석 I: 1974~1994,” *복식* 30권 (1996), pp. 19-40.

18) 은숙, 박재옥,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복식사와 디자인 및 미학분야에 관한 논문 분석: 1990~2004,” *한국의류학회지* 30권 3호 (2006), pp. 369-377.

19) 유혜경, 이승희, “한국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 경향과 시사점: 2000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2004), pp. 1121-1131.

일한 논문을 대상으로 본인과 연구 보조자가 분류한 후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구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 자료 분석

문헌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분석 자료는 학회지별, 연도별, 주제별로 나누었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1. 학회지별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비율

학회지별 전체 논문에 대한 의복구성학 논문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대한가정학회지의 경우 전체 논문수는 의류학과 관련된 총 논문의 수를 나타냈으며, 그 중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이 총 47편으로 전체 의류학 논문의 21.2%를 차지하여 다른 학회지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복식문화연구로 전체 논문 수 662편 중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이 128편으로 19.3%를 나타냈

다. 또 한국의를학회지는 전체 논문수 1,440편 중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이 238편으로 16.5%를 나타냈으며, 복식의 경우는 전체 논문수 979편 중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이 74편으로 7.6%를 나타냈다.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에 관한 연구 주제 및 경향분석을 한 선행 연구²⁰⁾의 경우 전체 의류학 논문수에 대한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수를 살펴본 결과 대한가정학회지(22.9%), 한국의를학회지(17.3%), 복식문화연구(12.2%), 복식(6.3%)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과거 한국의를학회지에 실린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수가 복식문화연구에 실린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2008년에는 복식문화연구에 실린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비중이 한국의를학회지에 실린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식문화연구의 경우 창간호가 한국의를학회지나 복식지에 비해 늦게 발간되면서 주로 복식사회심리나 마케팅 관련 논문의 투고가 많았으나 차차 타 영역의 논문도 꾸준히 증가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복식은 타 학회지에 비해 의복구성학 관련 논문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인간공

<표 1> 학회지별 전체 의류학 논문에 대한 의복구성학 논문의 비율

학회지명 연도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를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복식			대한인간공학 학회지 의복 구성 논문수
	전체 논문수	의복 구성 논문수	%	전체 논문수	의복 구성 논문수	%	전체 논문수	의복 구성 논문수	%	전체 논문수	의복 구성 논문수	%	
2000	15	3	20.0	120	20	16.7	71	16	22.5	105	5	4.8	1
2001	17	5	29.4	155	29	18.7	65	16	24.6	95	7	7.4	2
2002	25	9	36.0	165	28	17.0	59	9	15.3	99	4	4.0	7
2003	24	5	20.8	168	23	13.7	72	12	16.7	96	11	11.5	1
2004	29	4	13.8	159	27	17.0	80	15	18.8	108	9	8.3	4
2005	31	8	25.8	154	31	20.1	81	19	23.5	108	10	9.3	6
2006	31	6	19.4	172	26	15.1	80	20	25.0	120	10	8.3	2
2007	22	4	18.2	166	23	13.9	84	11	13.1	134	10	7.5	2
2008	28	3	10.7	181	31	17.1	70	10	14.3	114	8	7.0	1
합계	222	47	21.2	1,440	238	16.5	662	128	19.3	979	74	7.6	26

20)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op. cit., p. 178.

학지는 2000~2008년 동안 26편의 의복구성학 분야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손이나 발과 관련된 논문이 많았고 이외에도 인체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어 과학적이고 정확한 인체 측정과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근접 학문과 연계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 주제의 연도별, 학회지별 분포

의복구성학의 연구 주제는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체형 연구, 의복 패턴 연구, 의류 치수 체계, 의복 맞춤새, 봉제 연구, 특수복과 기능복, 기타 등으로 나누었으며,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연도별 변화는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의 경우, 2000년에는 가장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6년에 논문수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가 2008년에 다시 3.9%로 연구 비중이 떨어졌다. 체형 연구는 2000~2004년까지 전체 논문 수의 20% 전후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2005년 이후로 다소 그 수가 감소하였다가 2008년 다시 상승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의복 패턴 연구의 경우 2006년에 가장 많은 논문 수가 발표되었으며,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비교적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2004년에는 특수복과 기능복 관련 연구 논문이 전체 논문에 44.1%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로도 21.3~

36.0%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 의복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의복 맞춤새는 2000년에는 12.0%로 다른 연도에 비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점차 의복 맞춤새에 대한 연구 비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학회지별 경향은 <표 3>과 같다.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의 경우는 의류 관련 학회지인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복식 모두 29.3~34.1%로 각 학회지별로 비슷한 비중으로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봉제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 주제에서는 한국의류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복식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대한인간공학회지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인간공학회지의 경우 주로 체형과 특수복과 기능복 관련 논문과 체형 연구 논문이 많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별과 세부 주제별 분포

의복구성학의 연구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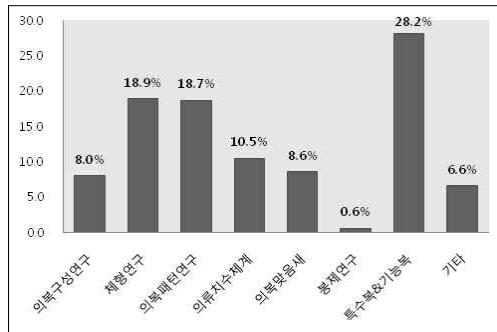
각 연구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수복과 기능복(28.2%), 체형 연구(18.9%)와 의복 패턴 연구(18.7%) 순으로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의복구성 관련 논문에서는 체형 연구(29.4%)

<표 2>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연도별 변화

연구 주제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	%	N	%	N	%	N	%	N	%	N	%	N	%	N	%	N	%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1	2.0	6	10.2	3	5.3	5	10.0	3	5.1	7	9.5	11	18.0	4	8.0	2	3.8
체형 연구	9	18.0	12	20.3	14	24.6	12	24.0	14	23.7	11	14.9	5	8.2	7	14.0	11	20.8
의복 패턴 연구	10	20.0	12	20.3	10	17.5	11	22.0	5	8.5	11	14.9	17	27.9	9	18.0	12	22.6
의류 치수 체계	8	16.0	4	6.8	9	15.8	7	14.0	7	11.9	12	16.2	5	8.2	5	10.0	2	3.8
의복 맞춤새	6	12.0	6	10.2	4	7.0	4	8.0	4	6.8	5	6.8	3	4.9	4	8.0	5	9.4
봉제 연구	0	0.0	1	1.7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1	1.9
특수복 & 기능복	12	24.0	14	23.7	12	21.1	8	16.0	26	44.1	21	28.4	13	21.3	18	36.0	16	30.2
기타	4	8.0	4	6.8	5	8.8	2	4.0	0	0.0	7	9.5	7	11.5	3	6.0	4	7.5
합 계	50	100.0	59	100.0	57	100.0	50	100.0	59	100.0	74	100.0	61	100.0	50	100.0	53	100.0

〈표 3〉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학회지별 경향

연구 주제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를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복 식		대한인간공학학회지		합계	
	N	%	N	%	N	%	N	%	N	%	N	%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2	4.9	13	31.7	12	29.3	14	34.1	0	0.0	41	100
체형 연구	4	4.2	46	47.4	22	22.9	16	16.7	9	9.4	97	100
의복 패턴 연구	10	10.4	41	42.7	32	33.3	9	9.4	4	4.2	96	100
의류 치수 체계	10	18.5	26	48.1	9	16.7	8	14.8	1	1.9	54	100
의복 맞춤새	6	13.6	21	47.7	12	27.3	4	9.1	1	2.3	44	100
봉제 연구	0	0.0	1	33.3	1	33.3	1	33.3	0	0.0	3	100
특수복 & 기능복	12	8.3	71	49.3	28	19.4	21	14.6	11	7.6	144	100
기타	3	8.8	18	52.9	12	35.3	1	2.9	0	0.0	34	100
합계	47	9.2	238	46.4	128	25.0	74	14.4	26	5.1	513	100



〈그림 1〉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별 분포.

와 의복 패턴 연구(21.9%)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특수복과 기능복은 6.7%에 불과하다는 이정순 외의 선행 연구²¹⁾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또 1959년에서 1990년까지의 의복구성 분야 논문을 분석한 김효숙의 선행 연구²²⁾에서도 체형 연구가 31.5%, 맞춤새와 관련된 동작 기능성 연구가 23.9%, 원형 연구가 17.4%로 나타났으며, 특수복과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즉, 본 연구의 경우 체형과 패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와 아울러 좀 더 다양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연구 분야가 특수복과 기능복 쪽으로

차츰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와 의복 맞춤새에 대한 연구는 8.0%, 8.6%의 연구 비중을 나타냈으며, 봉제 연구는 0.6%로 가장 적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세부 주제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먼저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를 살펴보면 의상제작기법 및 구성방법(48.8%)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서양복식사에 나온 의상에 대한 제작 방법을 고찰한 연구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7세기 봉제 구성방법, 조선시대 말군의 실물 제작 방법 등과 같은 한국복식과 관련된 구성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많이 발표된 세부 주제로는 체형에 따른 디자인 연구(17.1%)와 구성요소와 디자인(17.1%)에 관한 논문으로 나타났는데, 체형에 따른 디자인 연구로는 체형에 따른 프린세스 라인 연구, 체형에 따른 웨딩드레스 선호도, 체형에 적합한 시각효과를 위한 중년 남성 정장 디자인 연구 등이 있었으며, 구성요소와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는 원피스 허리 밴드 위치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테일러드 칼라 제도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개더 스커트의 시각적 평가 등이 있었다. 그 외에 세부 주

21)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op. cit., p. 179.

22) 김효숙, op. cit., p. 114.

제로는 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태에 따른 재킷 착의 실루엣 등과 같은 소재에 따른 구성방법과 디자인(9.8%)에 관한 논문 그리고 타이트 스커트 봉제 방법 비교 같은 봉제 방법의 비교(7.3%) 등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표 4>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세부 주제별 분포

연구 주제	세부 주제	N	%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의상 제작 기법 및 구성방법	20	48.8
	구성요소와 디자인	7	17.1
	체형에 따른 디자인 연구	7	17.1
	소재에 따른 구성 & 디자인	4	9.8
	봉제방법 비교	3	7.3
	계	41	100.0
의복 패턴 연구	원형 패턴 설계	26	27.1
	그레이딩 & 마킹	13	13.5
	체형별 패턴 설계	12	12.4
	소재에 따른 패턴 연구	10	10.3
	3D 프로그램에 의한 패턴 제작	9	9.3
	의복 여유량	7	7.2
	한복 패턴	3	3.1
	입체 패턴	2	2.1
	기타	10	10.3
	계	96	100.0
특수복 & 기능복	특수 기능복	50	34.7
	장갑, 구두, 모자류	46	31.9
	언더웨어 & 화운데이션류	33	22.9
	특이 체형 & 지체자 의복	15	10.4
	계	144	100.0
봉제 연구	봉제 능률화에 따른 봉제조건	1	33.3
	직물 봉제 성능	1	33.3
	무봉제형 편성 방법	1	33.3
	계	3	100.0
체형 연구	체형 분류(유형화)	52	53.6
	인체계측치 분석	15	15.5
	인체 계측 시스템 연구 & 개발	12	12.4
	체형 분석	6	6.2
	연령별 체형 연구	3	3.1
	기타	9	9.2
	계	97	100.0

<표 4> 계속

연구 주제	세부 주제	N	%
의류 치수 체계	기성복 치수 체계 및 치수 설정	27	50.0
	치수 설정 위한 체형 연구	9	16.7
	업체 치수 실태	8	14.8
	치수적합성	6	11.1
	치수 시스템 개발	4	7.4
	계	54	100.0
의복 맞춤새	동작적합성 & 착의적합성	17	38.6
	기성복 맞춤새 관련 연구	15	34.1
	체표면 변화 관련	8	18.2
	가상 외관 평가	2	4.5
	기타	2	4.5
	계	44	100.0
기타	의복 착용 실태 & 구매 실태	12	35.3
	생산실태 & 관리	11	32.4
	카드교육 및 활용실태	3	8.8
	기타	8	23.5
	계	34	100.0

두 번째 연구 주제인 “체형 연구”의 경우 체형을 유형화한 연구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인체계측치 분석에 관한 연구(15.5%), 인체계측 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연구(12.4%), 체형 분석(6.2%), 연령별 체형 연구(3.1%) 순으로 나타났다. 체형 연구에서 2000년대 들어서 새로 나타난 연구 주제중 하나는 인체계측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것으로 인체계측을 실시할 때 직접계측방법의 경우는 측정자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각종 3차원 바디스캐너가 인체 측정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측정된 계측치는 직접계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그 신뢰도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등 계측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연구 주제인 “의복 패턴 연구”의 경우 가장 많이 발표된 세부 주제는 원형 패턴 설계(27.8%)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딩과 마킹(13.4%), 체형별 패턴 설계(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에 따른 패턴 연구가 10.3%, 3D 프로그램에 의한 패턴 제작이 9.3%, 의복 여유량에 관한 연구가 7.2%, 한복

패턴은 3.1%, 입체 패턴은 2.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정순 외의 선행 연구²³⁾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 즉, 과거 의복 패턴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패턴 제도가 가장 많은 연구 비중(31.1%)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형 설계(17.0%), 체형과 패턴(14.1%), 한복 패턴(11.1%), 의복 여유량(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⁴⁾. 198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CAD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의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원형별 패턴 자동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에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에 들어서는 3차원 인체 형상을 스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이를 2차원적 패턴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원형 패턴 설계에 관한 연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레이딩과 마킹에 대한 연구와 소재에 따른 패턴 연구가 과거보다 더 많은 논문 주제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연구 주제인 “의류 치수 체계”의 경우 기성복 치수 체계 및 치수 설정이 전체 의류치수 관련 논문의 5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치수 설정을 위한 체형 연구(16.7%), 업체치수 실태(14.8%), 치수적합성(11.1%), 치수 시스템 개발(7.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규격(KS)에서는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류 치수 체계를 위하여 1999년에 의복 치수를 개정 고시하였다²⁵⁾. 때문에 성별, 연령별로 개정된 치수 체계에 맞추어 그에 적합한 의복 상, 하의 치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치수 체계 연구가 2000년 이후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연구 주제는 “의복 맞춤새”에 대한 것으로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부 주제는 동작적합성과 착의적합성(38.6%)에 관한 것이다. 즉, 소매산 높이 변화에 따른 여성복의 착의적합성을 평가한 연구, 성인 남성의 상체 동작 범위에 관한 연구, 진동 깊이에 따른 길원형의 동작적합성

에 관한 연구, 3차원 동작분석 장치를 이용한 하지 동작 연구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기성복 맞춤새에 관한 연구가 34.1%, 체표면 변화에 관한 연구가 18.2%로 나타났으며,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 모델에게 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와 가상 모델의 착의 평가 결과의 일치도를 검증하는 연구 등에 관련된 가상 외관 평가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연구 주제인 “특수복과 기능복 연구”의 경우 선행 연구²⁶⁾에서는 전체 의복구성 연구의 6.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연구 비중이 28.0%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주제의 경우, 특수 기능복에 관한 연구가 34.7%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웨어, 작업복, 특수복, 의료복 등 다양한 복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세부 주제로는 장갑과 구두, 모자류와 관련된 연구로 손, 얼굴, 발에 관련된 연구도 함께 포함하였으며 31.9%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언더웨어와 화운테이션에 관한 연구가 22.9%, 특히 체형과 지체자 의복에 관한 연구가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로 봉제 관련 논문은 3편에 불과하였는데, 봉제 작업 표준화를 위한 최적 봉제시간 연구, 니트 플레어 스커트의 무봉제형 편성방법 연구, 폴리우레탄 코팅포의 봉제 성능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그 외에 기타로는 의복 착용 실태 및 구매 실태(35.3%), 생산 실태 및 관리(32.4%), 캐드 교육 및 활용실태(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생산 실태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4. 연구주제별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분석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 중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체형 연구, 의복 패턴 연구, 의류 치수 체계의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2000년대 연구되어진 피험자 집단의 분포를 알아보고 아울러 연구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특수복과 기능복의 경우는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보다는

23)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op. cit., p. 179.

24) Ibid., p. 182.

2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치수표준화사업세미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0).

26) 이정순, 나수임, 배주형, op. cit., p. 179.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의복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먼저 체형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상은 중년 여성으로써 총 9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청년 여성과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각 7편,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편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많은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 연령층으로 전신 체형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유방 형태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청년기 피험자의 경우 연구자의 특성상 비교적 계측 대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비만 체형에 대한 연구의 경우는 점차 식습관이나 여러 사회 환경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만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측이 용이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 체형에 대한 연구에 비해 남성 체형에 대한 연구가 현저히 적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가 한국인인 경우 이외에도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을 연구한 논문이 4편 발표되었으며, 일본제일동포 체형 연구, 19세 이상 미국 성인 여성의 체형 연구, 18~39세 몽골 여성 체형 연구,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체형

<표 5> 체형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분석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내용				계
		전신체형 논문수	상반신 논문수	하반신 논문수	인체특정부위 논문수	
유아 (1~7세)	남	1 (6세)				1
	여	1 (6세)				1
학령아동 (만 7~12세)	남		1 (7~8세), 1 (11~12세)			2
	여	1	1 (7~8세)	1 (7~8세), 1 (10~11세)		4
트윈세대 (만 10~14세)	남	2				2
	여	2				2
청소년 (만 12~18세)	남					0
	여	1		1 (13~15세)		2
청년 (만 18~29세)	남	1	3	1	1 (측면형태)	6
	여		2	1	2 (목밑둘레), 2(유방)	7
중년 (만 35~59세)	남	1	1	1		3
	여	6	1		2(유방)	9
노년 (만 60세 이상)	남	1				1
	여	1	3	1		5
비만	남	1 (10대 이상)	1 (9~11세)			2
	여	1 (60세 이상), 1 (40, 50, 60대)	2 (20~60세)	1 (20~60세) 1 (30, 40, 50대)	1 (20대 유방)	7
기타 (특정집단)	남	1 (40세 이상 농업인)				1
	여	2 (40세 이상 농업인)				2

비교 연구 등이 발표되어 연구 대상자가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 패턴 연구의 경우, 세부 주제 중 원형 패턴 설계, 체형별 패턴 설계, 입체 패턴을 중심으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패턴 논문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청년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된 연령 범위만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형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복 패턴 연구도 청년기를 제외하고는 남성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패턴 연구 이외에도 남성복 패턴 부분에서는 남자 정장 바지 원형과 상의 원형에 관한 연구, 남성 캐주얼 원형에 관한 연구, 중년 남성 셔츠 원형에 관한 연구, 체형별 남성 상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여성복 패턴 부분에서는 라제리룩 패턴 연구, 성인 여성 길 원형 연구 등이 있었다.

세 번째로 의류 치수 체계의 세부 주제 중 기성복 치수 체계를 제안한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KS에 명시된 의류 치수 체계를 기준으로 체형과

연령에 따라 새로운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상의보다는 하의 의류 치수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년기 여성의 의류치수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교복 치수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소비자군인 트윈 세대에 대한 의류 치수규격 연구도 제안되고 있었다.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류치수를 제안하는 연구도 많았으나 더 폭넓은 연령층을 포괄하여 의류치수규격을 제안한 연구도 있었다. 즉, 20~60세 남자의 연령별, 체형별 치수 체계를 제안한 연구, 15~24세 여성의 니트 츄리닝 치수를 제안한 연구, 유아와 아동의 치수 체계를 제안한 연구, 18~49세 성인 여성의 상, 하의 치수 체계를 제안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의류 치수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체형 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18~2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형 분석, 44~54세 남자의 체형 분석, 18~69세 남자 체형 분석, 20~60세 남자 상반신 체형 분석 등이 있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신체특성을 파악하여 의복치수 체계를 제안한 연구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연구 주제

<표 6> 의복 패턴 연구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분석

연구내용		길 원형 논문수	토루소 원형 논문수	스커트 원형 논문수	바지 원형 논문수	재킷 원형 논문수	계
학령아동 (만 7~12세)	남	1(11~12세)					1
	여		1(11~12세)		2		3
청소년 (만 12~18세)	남						0
	여	1(여고생)			1(여중생)		2
청년 (만 18~29세)	남	1	1		3		5
	여	3	1		2		6
중년 (만 35~59세)	남					1(30대)	1
	여	1	1		1		3
노년 (만 60세 이상)	남						0
	여	1				2	3
비만	남						0
	여		1(체형별)	2			3

<표 7> 의류 치수 체계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분석

연구대상		연구내용	의류 치수 체계 논문수	상의 치수 논문수	하의 치수 논문수	기타 논문수	계
유아 (1~7세)	남					1 (수영복)	1
	여						0
트윈세대 (만 10~14세)	남	1	1	1	1		3
	여						
청소년 (만 12~18세)	남	1 (남중생 교복)					1
	여	2 (여중생 교복)		1 (여중생)			3
청년 (만 18~29세)	남	1					1
	여	2		1	1 (바디수트)		4
중년 (만 35~59세)	남	1					1
	여						0
노년 (만 60세 이상)	남		1				1
	여	2					2
비만	남						0
	여			1 (19~60세)			1

의 경우 공통적으로 남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효숙의 선행 연구²⁷⁾와 같은 결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수복과 기능복의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특수복과 기능복의 연구 세부 주제 중 특수기능

복의 경우 스포츠웨어에 대한 연구와 작업복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스포츠웨어의 경우 에어로빅복, 태권도복, 싸이클복, 스노보드복 등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의복이 연구되었으며, 작업복의 경우 역시 건설근로자 작업복, 무진복, 항공정비복, 우편배달부 방한복 등 다양한 복종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수복으로는 지뢰제거복, 지뢰탐지용 방호복, 경찰복, 소방대 근무복, 119 구조대 대원복 등이 연

<표 8> 특수복과 기능복의 연구내용 분석

연구세부주제	특수기능복	스포츠웨어	작업복	특수복	의료복	기타	계	
		19	19	5	4	3	50	
장갑, 구두, 모자류		머리 및 모자 연구		발 및 구두 연구		손 및 장갑 연구		46
		머리	모자	발	구두	손	장갑	
		16	1	10	6	6	7	
언더웨어 및 화운데이션		브래지어		팬티		화운데이션		33
		21		5		7		
특이 체형 및 지체자 의복		지체자 의복		임부복		환자복		15
		9		4		2		

27) 김효숙, op. cit., p. 114.

구되었으며, 의료복으로는 수술가운과 치위생사복, 간병인복 등이 연구되었다. 그 외에 기타로는 운전 자용 바지 연구 및 U 헬스케어 의복, 기능성 스마트 재킷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두 번째로 장갑과 구두, 모자류에 관한 연구의 경우 머리, 발, 손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으며 연구대상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령대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머리와 모자에 관한 연구는 총 17편으로 머리 측정이나 얼굴 유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음으로 발과 구두에 관한 연구는 총 16편으로 발 유형에 관한 연구가 10편으로 나타났다. 그 중 노인 발 유형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두 관련 연구로는 성인 남녀 구두 관련 연구와 남대생의 신발 착용현황, 고등학생의 신발 착용현황 등이 연구되었다. 손 및 장갑 관련 연구는 총 13편으로 손과 장갑에 관한 연구가 비슷한 비중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세부연구 주제인 언더웨어 및 화운데이션에 관한 연구는 브래지어에 관한 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녀(초등학교 6학년)부터 20대, 30~40대, 노년 여성까지 다양한 층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팬티 관련 연구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화운데이션 관련 연구는 화운데이션 치수 규격 및 기능성 거들에 관한 연구와 코르셋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며, 팬티스타킹 관련 연구 2편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특이 체형 및 지체자 의복의 경우 지체자 의복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부복 관련 연구가 4편, 환자복이 2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복과 기능복의 세부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착용 실태 및 구매 실태에 관한 연구가 총 144편 중 33편(22.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작 및 착의적합성이 28편(19.4%), 체형 분류 및 분석이 22편(15.3%), 패턴 설계가 18편(12.5%), 치수 체계 및 치수 설정이 12편(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00~2008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의복구성학의 연도별, 학회지별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의복구성분야

의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한가정학회지, 한국 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대한인간공학회의 논문 중 의복구성학 관련된 513편을 선별하였으며, 연구 주제를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체형 연구, 의복 패턴 연구, 의류 치수 체계, 의복 맞춤새, 봉제 연구, 특수복과 기능복, 기타로 나누어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별로 전체 논문에 대한 의복구성학 논문 비율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한가정학회지가 전체 의류학 논문의 21.2%로 의복구성학 논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식문화연구가 19.5%, 한국의류학회지가 16.5%, 복식지가 7.6%로 나타났다.

2. 의복구성학의 연구 주제를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 체형 연구, 의복 패턴 연구, 의류 치수 체계, 의복 맞춤새, 봉제 연구, 특수복과 기능복, 기타 등으로 나누어 연도별, 학회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도별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는 2000년 초기에는 가장 적은 논문수가 발표되었으나, 2006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다가 2008년 다시 연구 비중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체형 연구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점차 논문 수가 상승하다가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08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의복 패턴 연구는 2004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연구 주제의 20% 전후의 연구비중을 나타냈으며,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주제는 특수복과 기능복에 관한 것으로 2000년 이후로는 대부분 전체 연구 주제의 20~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기본형 의복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종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의복 맞춤새나 봉제 연구는 다른 주제에 비해 그 연구 비중이 적었으며 과거에 비해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구성학 연구 주제의 학회지별 경향을 살펴보면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의 경우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복식은 29.3~34.1%로

비슷한 비중으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한가정학회지는 4.9%, 대한인간공학회지는 한편의 논문도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제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한국의류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복식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대한인간공학회지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3. 의복구성학의 연구 주제별 분포와 세부 주제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먼저 연구 주제별 분포의 경우 특수복과 기능복에 대한 연구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체형 연구는 18.9%, 의복 패턴 연구는 18.7%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류 치수 체계는 10.5%, 의복 맞춤새는 8.6%,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는 8.0%, 기타는 6.6%, 봉제 연구는 0.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의복구성학의 연구 주제를 다시 세부 주제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디자인 관련 의복 구성 연구는 의상제작기법 및 구성방법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48.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체형에 따른 디자인 연구(17.1%)와 구성요소와 디자인(17.1%), 소재에 따른 구성 및 디자인(9.8%), 봉제방법 비교(7.3%)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체형 연구는 체형을 유형화한 연구(53.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인체계측치 분석에 관한 연구(15.5%), 인체계측시스템 연구 및 개발(12.4%), 체형 분석(6.2%), 연령별 체형 연구(3.1%)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의복 패턴 연구의 경우 가장 많이 연구된 세부 주제는 원형 패턴 설계(27.8%)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복 패턴 제작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중요한 단계가 원형 제작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그레이딩과 마킹(13.4%), 체형별 패턴 설계(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3D 프로그램에 의한 패턴 제작도 9.3%의 비중을 나타내 점차 3차원 인체 형상을 스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의류 치수 체계의 경우, 기성복 치수 체계 및 치수 설정이 전체 의류치수 관련 논문의 5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치수 설정을 위한 체형 연구(16.7%), 업체 치수 실태(14.8%), 치수적합성(11.1%), 치수 시스템 개발(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의류치수를 개정 고시한 이후로 그에 부합되는 새로운 의류치수규격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특히 연령별, 성별 각 체형에 적합한 치수규격을 제안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의복 맞춤새에 대한 것으로 동작적합성과 착의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기성복 맞춤새가 34.1%, 체표면 변화에 관한 연구가 18.2%, 가상외관 평가가 4.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주제인 특수복과 기능복의 경우 특수 기능복에 관한 연구가 34.7%로 나타났고, 장갑과 구두, 모자 관련 연구가 31.9%, 언더웨어와 화운데이션이 22.9%, 특이 체형과 지체자 의복이 10.4%로 나타났다. 봉제 관련 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연구로는 의복 착용 실태 및 구매 실태(35.3%), 생산 실태 및 관리(32.4%), 캐드 교육 및 활용 실태(8.8%)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 주제별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을 살펴본 결과, 체형 연구의 경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상은 중년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청년기 여성과 비만 여성, 청년기 남성, 노년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적었으며, 유아나 청소년층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도 발표되는 등 연구 대상자가 국내에서 점차 국외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 패턴 연구의 경우 역시 청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연령층의 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제한된 연령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한편, 의류 치수 체계에 대한 연구의 경우 앞의 다른 연구 주제와 마찬가지로 청년기 여성의 의류치수규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트윈세대의 치수도 새롭게 제안되고 있었다.

특수복과 기능복의 경우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특수기능복에서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이 된 주제는 스포츠웨어와 작업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복, 소방대 근무복과 같은 특수복, 의료복,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갑, 구두와 모자

관련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머리 계측에 관한 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발에 관한 연구 10편, 장갑 관련 연구 7편, 구두와 손 관련 연구 6편, 모자 치수 연구 1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언더웨어와 화운레이션의 경우 브래지어 관련 연구가 2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용 브래지어부터 20대, 30~40대, 노년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연구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팬티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운레이션 관련 논문은 화운레이션 치수규격과 기능성 거들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특이 체형 및 지체자 의복의 경우 지체자 의복에 관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부복 4편, 환자복 2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의복구성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체형 연구와 의복 패턴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스포츠웨어, 작업복, 의료복, 언더웨어류, 지체자복 그리고 장갑, 구두, 모자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는 과거 한정된 의복에 관한 연구에서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차차 다양한 의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한 3D 프로그램의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의복구성 분야에서는 인체계측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체를 스캔하여 직접 계측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 피험자의 피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패턴 제작에서도 3D 형태의 인체를 2D 패턴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개발될 것으로 생각되며, 의복구성 분야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과 활용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의복 패턴이나 체형 연구, 의류 치수 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범위가 청년기 남, 여에게 편중되어 있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 연구의 경우 청년기 여성 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어 그나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 패턴 연구나 의복치수 체계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나 남성 체형에 대한 연구는 전 연령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향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소비자층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연령 구분에 의한 체형 연구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자 집단에 대한 체형 연구 등도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부유한 노인층이 새로운 소비자 군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들의 체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복 맞춤새나 의류 치수 체계 등에 반영한다면 고부가가치성이 있는 의류 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미자 (1990).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 1958~1989.” 복식 15권.
- 김정호 (1999). “90년대(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한국 의류학회지와 한국 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 46권.
- 김효숙 (1991). “의복구성 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과 재조명.”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 14권.
- 나수임, 이정순, 배주형 (2000). “한국 의류학의 연구 경향분석: 1991~1999.” 복식문화연구 8권 6호.
- 대한가정학회지 편 (1977).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의생활*. 서울: 신광출판사.
- 대한가정학회지 편 (1984).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 의류학*. 서울: 신광출판사.
- 대한가정학회지 편 (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I, 의류학*. 서울: 교문사.
- 문수재, 이기열 (1984).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 박순희 (1981). “의류학 연구 논문의 분야별 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숙, 최경미, 조영아, 옹혜정 (1998). *피복구성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0). *치수표준화사업세미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 유혜경, 이승희 (2004). “한국 패션마케팅 분야의 연구 경향과 시사점: 2000년까지의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 은숙, 박재옥 (2006).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복식사와 디자인 및 미학분야에 관한 논문 분석: 1990~2004.” *한국의류학회지* 30권 3호.
- 이영혜, 이인자 (1996). “복식사회, 심리학분야의 연구 경향 분석 I: 1974~1994.” *복식* 30권.
- 이정순, 니수임, 배주형 (2001). “의복구성학의 연구 주제 및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9권 2호.
-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 (1991). “한국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권 1호.
- 조필교 (1986). “의복사회심리학의 동향과 그 고찰.” *경북대학교 교육연구지* 28권.